

‘-고’ 접속문에서의 ‘-겠-’의 작용역 연구 -‘-었-’, ‘-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현경(연세대 국문과)

1. 서론

이 연구는 선어말어미 ‘-겠-’의 작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속문에서의 선어말어미 ‘-겠-’은 선행절에 나타나는 접속어미나 앞뒤 문장의 주어 제약 등 통사적 조건에 따라 문장 전체가 작용역이 되거나 결합된 절에 작용역이 한정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하에서 작용역의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겠-’이 가지는 ‘미래, 가능성, 추측, 예정, 의지’ 등의 다양한 의미 해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겠-’을 양태나 서법의 범주 중 어떠한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범주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의 작용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연결어미 ‘-고’로 이어지는 접속문(이하 “-고’ 접속문”이라 함)에서의 ‘-겠-’의 작용역의 범위나 결합 양상을, 선어말어미 ‘-었-’과 ‘-시-’와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 접속문은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대등접속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종속접속문으로 볼 수도 있는 등 접속문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접속문으로 한정하는 것은 ‘-겠-’의 작용역의 변화를 세밀히 분석해 보는 데 유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다음의 (1), (2)는 대등접속의 ‘-고’ 접속문에서 ‘-겠-’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 (1) ㄱ. 영화는 학교에 가고 철수는 병원에 가겠다.
- ㄴ. 영화는 학교에 가겠고 철수는 병원에 가겠다.
- (2) ㄱ. 엄마는 시장에 가시고 나는 학교에 가겠다.
- ㄴ. ?엄마는 시장에 가시겠고 나는 학교에 가겠다.

(1ㄱ)에서는 ‘-겠-’이 후행절에만 결합되었지만 ‘-겠-’의 작용역은 선행절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ㄴ)에서 보듯이 ‘-겠-’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양쪽에 다 결합할 수 있는데 이때 대등접속으로서의 ‘-고’의 기능이 더 확실해진다. (1)에서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2)도 대등접속으로 해석되지만 (2ㄱ)의 후행절에 결합된 ‘-겠-’은 의지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겠-’의 작용역은 후행절에 국한된다. (2ㄱ)의 선행절에는 의지의 의미를 읽을 수 없으며 (2ㄴ)의 경우처럼 선행절에 ‘-겠-’이 결합된다라도 의지의 의미가 아닌 추측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접속문에서 ‘-겠-’의 작용역은 접속어미가 지니는 접속 기능뿐 아니라 선행행절의 주어 관계에 따른 ‘-겠-’의 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 접속문에서의 ‘-겠-’의 작용역에 대하여 접속어미의 기능에 따른 선행행절의 의미 관계, 선행행절의 주어 관계, ‘-겠-’의 의미 해석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고’ 접속문에서의 ‘-겠-’의 작용역

연결어미 ‘-고’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 (3) ㄱ. 산은 높고 물은 맑다.
- ㄴ. 넓고 넓은 바다에 조각배가 간다.
- (4) ㄱ. 철수는 비를 맞고 걸어간다.
- ㄴ. 영화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
- ㄷ. 철수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
- ㄹ. 철수는 차를 몰고 부산에 갔다.
- ㅁ. 그는 건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
- (5) 영화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 (6) 요즘은 먹고살기가 참 어렵다.

연결어미 ‘-고’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3)에서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적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4)는 종속접속의 예인데 (4ㄱ)은 선행절의 행동과 후행절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짐(동시 나열)을 나타내고 (4ㄴ)은 선행절의 행동이 후행절의 행동에 앞섬(계기 나열)을 나타내며 (4ㄷ)은 선행절의 행동이나 결과가 후행절의 행동과 더불어 계속됨(동작 지속)을 나타낸다. (4ㄹ)은 선행절의 행동이 후행절의 행동의 수단이나 방법임(수단/방법)을 나타내고 (4ㅁ)은 선행절의 행동이 후행절의 사실의 이유나 근거(이유/근거)가 되는 예이다. (4)의 ‘-고’는 ‘-고서’와 바꾸어 쓸 수 있지만 (4)를 제외한 나머지 ‘-고’는 ‘-고서’와 교체할 수 없다. (5)는 소위 보조적 연결어미로서의 ‘-고’이며 (6)은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고’이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연결어미 ‘-고’는 대등접속의 (3ㄱ)과 종속접속의 (4) 전체이다. 나머지 (3ㄴ), (5), (6)의 ‘-고’는 동사구를 연결하거나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두 절 사이에서의 ‘-겠-’의 작용역 관계를 살피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3ㄱ), (4ㄱ)~(4ㅁ)과 같은 접속문에서 ‘-겠-’의 작용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3)~(6)에서 보듯이 연결어미 ‘-고’는 대등접속과 종속접속 등 절 접속뿐 아니라 동사구 접속, 단어 접속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다양하고, 나열을 비롯하여 결과지속, 수단, 이유 등 의미도 여러가지로 분화되어 있어 ‘-고’ 접속문을 중심으로 ‘-겠-’의 작용역을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1 대등접속의 ‘-고’ 접속문과 ‘-겠-’

대등접속의 ‘-고’ 접속문에서 ‘-겠-’의 작용역은 예문 (1), (2)에서 보았듯이 ‘-겠-’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겠-’의 의미는 단순한 미래, 화자의 추측, 화자의 의지 등을 비롯하여 가능성이나 능력,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1), (2)에서는 ‘-겠-’의 의미가 추측이나 의지나에 따라 작용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 (3) ㄱ. 내일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 ㄴ. 조금 후에 부산행 기차가 떠나고 대전행 기차가 도착하겠다.

(3)은 ‘-겠-’이 단순한 미래를 의미하는 예인데 ‘-겠-’은 추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겠-’의 작용역이 선행절에까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ㄱ. 내일은 비가 오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ㄴ. 조금 후에 부산행 기차가 떠나겠고 대전행 기차가 도착하겠다.

(3)은 (3)에서처럼 선행절에 ‘-겠-’을 삽입하여도 문장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다. (3)에 ‘-겠-’이 결합되면 대등접속으로서의 의미가 더 선명해져서 시간적 선후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줄어든다. 대등접속문에서의 ‘-겠-’의 결합 양상은 다른 선어말어미 ‘-었-’과 동일하다. 다음의 (4), (4)는 ‘-었-’이 결합된 경우이다.

(4) ㄱ.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ㄴ. 부산행 기차가 떠나고 대전행 기차가 도착하였다.
 (4) ㄱ. 비가 왔고 바람이 불었다.
 ㄴ. 부산행 기차가 떠났고 대전행 기차가 도착하였다.

대등접속문에서 ‘-겠-’과 ‘-었-’은 후행절에만 결합하여도 선행절까지 그 기능이 미치는 데 비하여 선어말어미 ‘-시-’는 후행절에 결합될 경우 선행절까지 그 기능이 미치지 못한다.

(5) ㄱ. *할아버지는 부산에 가고 할머니는 대전에 가신다.
 ㄴ. 할아버지는 부산에 가시고 할머니는 대전에 가신다.

예문 (5)는 ‘-시-’는 ‘-겠-’이나 ‘-었-’과 달리 선행절과 후행절에 각각 결합되어야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선어말어미라 할지라도 의미와 기능에 따라 작용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선어말어미의 범주 설정이나 위계와도 관련이 있다.

‘-겠-’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 (2)처럼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다음의 (6)에서와 같이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도 있다.

(6) ㄱ. 나는 밥도 먹고 빵도 먹겠다.
 ㄴ. 나는 밥도 먹겠고 빵도 먹겠다.

(6)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후행절의 ‘-겠-’의 기능이 선행절에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지의 ‘-겠-’도 추측이나 미래의 의미를 지닐 때와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겠-’의 작용역이 선행절에까지 미친다. (2)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후행절의 ‘-겠-’이 가지는 의지의 의미가 선행절에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의 동일성 여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7) ㄱ. 이 문제도 모르겠고 저 문제도 모르겠어요.
 ㄴ. ?이 문제도 모르고 저 문제도 모르겠어요.

(7ㄱ)은 ‘-겠-’이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후행절에 ‘-겠-’이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행절에도 반드시 ‘-겠-’이 결합되어야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7ㄴ)처럼

선행절의 ‘-겠-’이 생략되면 후행절의 ‘-겠-’이 가지는 완곡한 의미가 선행절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는 선어말어미 ‘-시-’와 동일한 양상이다. 이는 완곡의 ‘-겠-’은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범주가 아니라 다른 범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겠-’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겠-’이 가지는 추측의 의미 때문이다. 사태를 단정하지 않고 단지 추측을 하는 것은 청자에게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완곡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7)의 경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이 현재의 상태일지라도 모른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의 ‘-겠-’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완곡한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겠-’이 가지는 완곡의 의미가 추측과 분리되면서 ‘-겠-’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게 된다.

(8) ㄱ. 비가 왔겠고 바람도 불었겠다.
 ㄴ. *이 문제도 몰랐겠고 저 문제도 몰랐겠어요.¹⁾
 ㄷ. *나는 집에 갔겠다.²⁾

(8ㄱ)에서 추측의 ‘-겠-’은 과거의 선어말어미 ‘-었-’과 함께 쓰일 수 있지만 (8ㄴ)은 완곡의 ‘-겠-’이 ‘-었-’과 함께 쓰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8ㄷ)에서 의지의 ‘-겠-’도 역시 선어말어미 ‘-었-’과 함께 쓰일 수 없다. 임동훈(2001: 144)에서는 ‘-겠-’이 의지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시-’ 이외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을 두고 이때의 ‘-겠-’의 작용역은 명제 전체가 아니라 명제의 일부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추측의 ‘-겠-’은 ‘-었-’과의 결합이 가능하므로 그 작용역이 명제 전체에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6)을 두고 볼 때 ‘-었-’과의 결합 여부만을 가지고 ‘-겠-’의 작용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의지의 ‘-겠-’이 ‘-었-’과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의지’가 가지는 의미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2 종속접속의 ‘-고’ 접속문과 ‘-겠-’

종속접속의 ‘-고’ 접속문은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의미별로 ‘-겠-’의 작용역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1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은 선행절의 행동과 후행절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9)에서 보듯이 후행절에 결합된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겠-’의 작용역이 선행절에까지 미친다.

(9) ㄱ. 철수는 비를 맞고 집에 가겠다.
 ㄴ. 철수는 농사를 짓고 살겠다.
 (9) ㄱ. *철수는 비를 맞겠고 집에 가겠다.
 ㄴ. *철수는 농사를 짓겠고 살겠다.

그러나 (9)에서 보듯이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의 선행절에 ‘-겠-’이 결합되면 비문이 되거나 대등접속문으로 해석된다.

1) 이 문장이 가능하다면 그때의 ‘-겠-’은 추측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2) 이 문장이 가능하다면 ‘-겠-’이 추측으로 해석될 경우이다.

- (10) ㄱ. 나는 비를 맞고 집에 가겠다.
 ㄴ. 나는 농사를 짓고 살겠다.
 (10)' ㄱ. *나는 비를 맞겠고 집에 가겠다.
 ㄴ. *나는 농사를 짓겠고 살겠다.

(10), (10)'를 통해 의지의 '-겠-'도 추측의 '-겠-'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결합된 '-겠-'의 작용역 양상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나열의 '-고'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겠-' 뿐 아니라 '-었-', '-시-' 등의 선어말어미도 결합할 수 없다.

- (11) ㄱ. 철수는 비를 맞고 집에 갔다.
 ㄴ. 나는 농사를 짓고 살았다.
 (11)' ㄱ. *철수는 비를 맞았고 집에 갔다.
 ㄴ. *나는 농사를 지었고 살았다.
 (12) ㄱ. 할아버지께서 비를 맞고 집에 가신다.
 ㄴ.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사신다.
 (12)' ㄱ. ?*할아버지께서 비를 맞으시고 집에 가신다.
 ㄴ.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사신다.

대등접속의 '-고' 접속문에서 선행절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하기 어렵다. 대등접속의 선행절의 '-시-' 결합 여부를 보인 (5)와 비교해 볼 때 (12)'는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의 후행절에 결합된 '-시-'의 작용역이 대등접속과 달리 선행절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이 대등접속처럼 두 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를 하나의 사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등접속의 '-고' 접속문에서는 후행절의 '-겠-'의 기능이 선행절에까지 미칠 뿐 아니라 선행절에도 '-겠-'이 결합할 수 있어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인 절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추측이나 의지 이외의 의미인 완곡, 미래 등의 '-겠-'은 동시 나열의 '-고'로 접속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2.2.2 계기 나열의 '-고' 접속문

계기 나열 '-고' 접속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순서가 뚜렷하다.

- (13) ㄱ. 철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겠다.
 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겠다.
 ㄷ. 잠시 후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도착하겠다.
 (13)' ㄱ. ?*철수는 밥을 먹겠고 학교에 가겠다.
 ㄴ. ?*나는 밥을 먹겠고 학교에 가겠다.
 ㄷ. ?*잠시 후 기차가 기적을 울리겠고 도착하겠다.

계기 나열의 '-겠-'의 작용역은 동시 나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3)에서 후행절에 결합된 '-겠-'이 선행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13)'은 계기 나열의 선행절에 '-

겠-'이 결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겠-'이 추측, 의지, 단순미래로 쓰이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 (14) ㄱ. 철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ㄷ. 잠시 후 기차가 기적을 울리고 도착했다.
 (14)' ㄱ. ?철수는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
 ㄴ. ?나는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
 ㄷ. ?잠시 후 기차가 기적을 울렸고 도착했다.

(14)에서 선어말어미 '-었-'의 작용역을 살펴보면 '-겠-'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결합된 '-었-'의 기능이 선행절까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4)'에서처럼 '-었-'이 선행절에 결합될 수 있으나 이때의 '-고'는 종속접속이 아니라 대등접속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의 독립된 사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 (15) ㄱ. *할아버지께서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체조를 하고 경로당에 가셨다.
 (15)' ㄱ. 할아버지께서 아침을 드시고 경로당에 가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체조를 하시고 경로당에 가셨다.

(15), (15)'를 통하여 계기 나열의 '-고' 접속문에서 선어말어미 '-시-'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에 '-시-'가 결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겠-', '-었-'의 결합 양상과 달리 선행절에 '-시-'가 결합되었다고 해서 대등접속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는 동시 나열의 '-고' 접속문에서의 '-시-' 결합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다. 같은 연결어미로 이어진 '-고' 종속접속문이라 할지라도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구조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3 동작 지속의 '-고' 접속문

동작 지속의 '-고' 접속문은 선행절의 동작의 결과가 후행절에도 지속되는 경우이다.

- (16) ㄱ. 철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겠다.
 ㄴ. 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겠다.
 ㄷ. 잠시 후 기차가 석탄을 싣고 도착하겠다.
 (16)' ㄱ. *철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겠고 학교에 가겠다.
 ㄴ. *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겠고 학교에 가겠다.
 ㄷ. *잠시 후 기차가 석탄을 싣고 도착하겠다.

(16), (16)'를 통하여 동작 지속의 '-고'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겠-'의 기능이 선행절에도 미치며 선행절에 '-겠-'이 결합되는 것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었-'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 (17) ㄱ. 철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 ㄷ. 잠시 후 기차가 승객을 가득 태우고 도착했다.
- (17)' ㄱ. *철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뺐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새로 산 책가방을 뺐고 학교에 가졌다.
- ㄷ. *잠시 후 기차가 석탄을 실었고 도착했다.

(16)', (17)'에서 선행절에 선어말어미 '-겠-'이나 '-었-'이 결합되면 동작 지속의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사태가 독립적으로 해석된다.

- (18) ㄱ. 할아버지께서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부산에 가셨다.
- ㄴ. 할아버지께서 스탠드를 켜고 책을 보신다.
- (18)' ㄱ. 할아버지께서 새로 산 가방을 드시고 부산에 가셨다.
- ㄴ. 할아버지께서 스탠드를 켜시고 책을 보신다.

동작 지속의 '-고' 접속문에서 '-시-'는 선행절에 결합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며 선행절에 결합되는 경우에도 비문이 되거나 대등접속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2.4 수단/방법의 '-고' 접속문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고' 접속문에서 '-겠-', '-었-', '-시-'의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9) ㄱ.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겠다.
- ㄴ.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겠다.
- (19)' ㄱ. *철수는 자전거를 타겠고 학교에 가겠다.
- ㄴ. *나는 자전거를 타겠고 학교에 가겠다.
- (20) ㄱ.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 (20)' ㄱ. *철수는 자전거를 탔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자전거를 탔고 학교에 갔다.
- (21) ㄱ.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셨다.
- ㄴ. 할아버지께서 차를 몰고 부산에 가셨다.
- (21)' ㄱ. 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학교에 가셨다.
- ㄴ. 할아버지께서 차를 모시고 부산에 가셨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고' 접속문의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은 동작 지속과 비슷하다.

2.2.5 이유/근거의 '-고' 접속문

이유나 근거를 의미하는 '-고' 접속문에서 '-겠-' 작용역은 앞서 살펴본 '-고' 종속접속문의 양상과 다르다.

- (22) ㄱ.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워하겠다.
- ㄴ. *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갑겠다.
- (23) ㄱ.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워하겠다.
- ㄴ. *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겠다.
- (23)' ㄱ.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았고 반가워하겠다.
- ㄴ.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았고 반가워했겠다.
- ㄷ. *철수는 영희 편지를 받았겠고 반가워했겠다.

(22)에서 후행절에 '-겠-'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고' 접속문이 이유, 원인으로 해석되기보다 조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23ㄱ)에서처럼 후행절에 '-았겠-'이 결합되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23ㄴ)은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에서는 의지의 '-겠-'이 결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의 후행절은 선행절에 의한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의 사태가 화자의 의도성을 가지기 어렵다³⁾. 그러므로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에서는 '-겠-'이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23ㄱ)에서 '-었-'은 선행절에까지 그 기능이 미쳐 '철수가 영희의 편지를 받은' 사실이 과거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겠-'의 작용역은 '-었-'과 달리 선행절에 이르지 못한다. 즉 '철수가 영희의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한 추측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에서 보듯이 선행절에 '-었-', '-겠-', '-었겠-' 모두 결합이 불가하거나 결합이 가능해지면 대등접속으로 해석되어 '-고'가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 (24) ㄱ. 철수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겠다.
- ㄴ. 영희는 결혼해서 행복하겠다.
- ㄷ.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살기 어렵겠다.
- ㄹ. 너는 남자니까 잘 알겠다.
- (24)' ㄱ. *철수는 밥을 많이 먹겠어서 배가 부르겠다.
- ㄴ. *영희는 결혼하겠어서 행복하겠다.
- ㄷ. *물가가 너무 오르겠으니까 살기 어렵겠다.
- ㄹ. *너는 남자이겠으니까 잘 알겠다.

(24)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서', '-니까'와 같은 어미로 연결된 접속문에서도 '-겠-'의 작용역은 후행절에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4)'에서 선행절에 '-겠-'이 결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25) ㄱ.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
- ㄴ. 나는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
- (25)' ㄱ. *철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았고 반가웠다.
- ㄴ. *나는 영희의 편지를 받았고 반가웠다.

3) 이희자·이종희(2001)에서는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의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고 하였다. 비슷한 의미의 연결어미 중 '-어서'는 '-고'와 비슷하게 후행절이 선행절의 사태가 이유가 된 소극적인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지만 '-니까'는 후행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있다.

(25), (25)'에서 '-었-'의 작용역이 선행절에까지 미치지만 선행절에 '-었-'이 결합되면 종속접속의 이유나 근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26) ㄱ. ?할아버지께서 영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워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연탄가스를 맡고 쓰러지셨다.
 (26)' ㄱ. 할아버지께서 영희의 편지를 받으시고 반가워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연탄가스를 맡으시고 쓰러지셨다.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에서의 '-시-' 결합 양상을 보면 선행절에 '-시-'가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의 (27)과 같이 선행절의 서술어로 '먹다'를 선택하면 더 선명해진다.

- (27) ㄱ. *할아버지께서 선밥을 먹고 배탈이 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선밥을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

이유나 근거의 '-고' 접속문의 선행절에 '-시-'가 결합되어야 자연스럽다는 것은 후행절의 '-시-'가 선행절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고' 접속문에서의 선어말어미의 작용역과 결합 양상

'-고' 접속문에서 '-겠-'의 작용역을 살펴본 결과 완곡의 '-겠-'을 제외하고 추측이나 의지, 단순 미래 등의 '-겠-'의 다양한 의미는 '-겠-'의 작용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 대등접속문에서 완곡의 '-겠-'의 작용역이 다른 의미로 쓰인 '-겠-'의 작용역과 다른 것은 완곡의 '-겠-'이 그 이외의 의미의 '-겠-'과 다른 범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장에서 후행절에 결합된 '-겠-'의 기능이 선행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를 '-었-', '-시-' 등의 선어말어미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어말어미 \ '-고' 접속문	대등접속	종속접속				
		동시나열	계기나열	동작지속	수단	이유
-겠-	○	○	○	○	○	×
-었-	○	○	○	○	○	○
-시-	×	○	×	○	○	×

<표 1 선어말어미 작용역의 선행절 영향 여부>

후행절에 결합된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선행절까지 미치느냐를 살펴본 결과, '-고' 종속접속문의 선후행절의 '동시나열, 동작지속, 수단'의 의미 관계로 해석될 때 선어말어미의 작용역

양상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시나열이나 동작지속, 수단 등의 의미 관계는 선행절의 사태가 후행절의 사태와 겹쳐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행절에 결합된 선어말어미의 작용역이 선행절에까지 미치게 된다.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계기나열은 선어말어미의 작용역 영향 관계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계기나열이 종속접속이기는 하나 선행절의 사태와 후행절의 사태가 겹치지 않고 시간적인 순서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접속 중 가장 대등접속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유를 나타내는 '-고' 접속문은 선행절의 사태가 일어난 후 그 결과로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었-'을 제외한 나머지 '-겠-'과 '-시-'의 해석에 있어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다. 그러나 후행절에 결합된 선어말어미의 작용역이 선행절까지 미친다는 것과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독립적이라면 선행절과 후행절 각각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성 정도를 보기 위하여 2장에서 살펴본 '-고' 접속문에서 선어말어미가 선행절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선어말어미 \ '-고' 접속문	대등접속	종속접속				
		동시나열	계기나열	동작지속	수단	이유
-겠-	○	×	×	×	×	×
-었-	○	×	×	×	×	×
-시-	○	×	○	○	○	○

<표 2 선어말어미의 선행절 결합 여부>

<표2>에서 '-고' 대등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독립적이므로 선어말어미 '-겠-', '-었-', '-시-' 모두 선행절에 결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고' 종속접속문에서는 '-겠-'과 '-었-' 모두 선행절 결합이 불가하였으며 이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어말어미 '-시-'의 경우는 '-겠-'이나 '-었-'과 달리 선행절의 독립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에 계속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에서 '-겠-'의 작용역 및 결합 양상이 '-고' 접속문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하여 '-었-'과 '-시-'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선어말어미의 작용역은 선어말어미의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결과 선어말어미 중 '-었-'이 가장 넓은 작용역을 가지고 있었으며 '-겠-'과 '-시-'의 순서였다. 특히 '-시-'의 경우는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의 행위와 겹쳐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각각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좁은 범위의 작용역을 가지고 있었다. '-겠-'의 작용역은 추측, 의지, 미래 등 구체적인 의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선어말어미의 작용역 및 결합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접

속문의 의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 접속문뿐 아니라 다른 연결어미로 접속된 문장에서도 이러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복문에서의 선어말어미의 작용역이나 결합 관계를 세밀히 살핀 결과는 선어말어미를 어떠한 범주로 볼 것인가의 논의에서 중요한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어말어미를 양태, 서법, 시제 등 여러 범주로 보아 왔는데 선어말어미의 범주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접속문과 같은 복문에서의 선어말어미의 기능과 작용역, 결합 양상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남길임(1998), “‘-겠-’ 결합 양상에 따른 종속접속문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IV>(남기십 역음), 태학사, 423~45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남순(1998), <시제·상·서법>, 월인.
이병기(2006),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179~206.
이은경(1995),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국어학회, 115~147.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국어학회.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탑출판사.